

“은퇴·창업설계 문화센터서 하세요”

유통업계, 홀로·시니어족 겨냥 교육 강화 건강·감성·인문 등 이색과목 개발 경쟁

지역 유통업계가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가 진화하고 있다. 취미·교양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자녀교육, 제테크, 창업, 은퇴설계 등 전문영역으로 넓어지고 있다. 이용자도 30~40대에서 어린이, 50대 이상 시니어 등 모든 연령대로 확대되고 있다.

27일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3월 봄학기 개강을 앞두고 문화센터들이 저마다 전문성을 갖춘 강좌로 제단장에 나섰다. 특히 홀로족과 가족, 시니어 수강생들을 겨냥한 이색 프로그램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지역 이마트 문화센터는 17년 겨울학기 전체 수강자들은 전년비 2.3%

신장했으며, 신규 이색강좌들이 수강생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인생은 한 번뿐이다(You Only Live Once)’의 앞 글자를 딴 홀로족이 증가하면서 문화센터 이색강좌들이 뜨고 있다. 홀로족은 현재의 행복을 위해 지금 당장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취미생활, 자기개발 등에 돈을 아낌없이 소비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의 주 관심인 건강, 감성, 힐링을 주제로 한 강좌에 수강이 집중되고 있다.

벨런스 위킹은 필라테스, 벨리댄스, 요가와 달리 장소, 시간, 복장에 구애받지 않고 바른자세, 워킹동작으로 스트레스 해소 및 자신감을 회복하는 프로그램

으로 쉽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 강좌다.

플라워디자인은 전통적인 꽃꽂이 강좌보다 저렴하게 생활 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바구니나 식물을 이용해 나만의 감성의 꽃 장식과 선물박스 만들기를 배울 수 있다.

예쁜씨 POP강좌는 소자본 창업, 악필교정, 자신만의 예쁜씨를 정조하는 재미와 취미로 여전히 인기가 높다.

이마트 피코크와 노브랜드 제품을 이용한 쿠킹클래스도 인기다. 쉽게 접할 수 있고 간편가정식 제품을 이용한 순대볶음, 오므라이스, 참치샌드위치, 쿠키 등을 만든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문화센터(센터장 이우옥)도 2017년 봄학기 문화센터 회원들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봄학기 테마인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에 맞춰 신규·특별 강좌 등 280강

좌를 개설했다.

이번 학기에는 유명 인사, 전문가 등을 초청해 정보를 교류하는 콘서트, 제테크, 은퇴설계 등 특별강좌를 기획했다.

단기강좌에서는 직장 주부들이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영·유아부터 초·중·고생까지 함께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늘렸다.

이 외에도 교양 클래스, 해설가와 함께하는 봄길 여행, 미술, 악기, 노래, 댄스, 발레, 요가 등 삶의 질을 높여주는 강좌도 마련했다.

이마트 박민수 문화센터 팀장은 “문화센터는 아동·주부들의 여가와 취미생활 공간에서 벗어나 모든 연령들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각 연령들의 요구를 반영한 이색 강좌 기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농협광주본부는 최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2017 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 정기총회

신임 장세득 회장 선출·추진사업 확정

농협광주본부(본부장 박태선)는 최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2017 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회장 선출과 협력사업, 전문문화 보존, 농업·농촌 가치의 중요성 홍보 등 추진사업을 확정했다.

9대 회장으로 선출된 장세득 회장(63)은 “후배 여성 농업인과 다문화가정 여성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교육을 통해 농촌이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 나눔 활동과 농촌 활력에 기여한 농가주부모임 서광주농협분회(분회장 설희숙)와 대농농협분회(분회장 이향화)가 우수조직상을 수상했다.

박태선 본부장은 “노령화와 부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려운 이웃들과 아픔을 같이 나누는 봉사활동에 앞장서는 광주시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광주·전남중기청 전남동부사무소 신설

순천·여수·광양 중기 숙원사업 해결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은 오는 28일 전남테크노파크에 전남동부사무소를 개소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남동부사무소는 순천을 비롯해 여수,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등 7개 시·군의 중소기업 행정서비스를 담당한다.

김진형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전남동부사무소 신설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며 “개소 이후 순천·여수·광양 등 전남 동부지역의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밀착·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과수 육성·마케팅·출하창구 일원화

전남농협, 전남과수산업 발전 토론회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흥묵)는 27일 장성행동농협(조합장 김진환)에서 전남과수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남과수산업발전계획은 시·군단위로 산재돼 있는 과수산업 육성정책을 전남도 주관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통합마케팅과 출하창구를 농협전남지역본부 유통사업단으로 단일화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전남농협은 시군단위 규모·조직화를 통한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과수 단일 브랜드 ‘삼구에’를 신규 런칭, 단감을 전남도 통합마케팅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흥묵 본부장은 “도·월애산업 종합계획과 전남과수발전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삼구에’ 브랜드를 집중 육성하겠다”며 “전남 농산물이 제값에 판매되고, 농업인에게 실익 있는 판매사업이 되도록 전남농협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현대차 아이오닉 플러그인 출시

배터리 평생 보증 등 친환경차 고객 프로그램 강화

현대자동차가 친환경차 전용 모델인 아이오닉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를 출시했다.

또 친환경차를 고려하는 소비자가 가장 걱정하는 충전 문제와 배터리 내구성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고객 케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아이오닉은 지난해 출시한 하이브리드(HEV)와 일렉트릭(EV)에 이어 플러그인까지 3개 모델로 구성된 라인업을 완성했다.

플러그인은 고효율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장착, 1회 충전 시 전기만으로 최대 46km 주행이 가능하며 가솔린을 포함해 총 900km 이상 달릴 수 있다. 연비는 휘발유 기준 20.5km/l, 전기 기준 5.5km/kWh로 국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 최고 수준이라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신형 카파 1.6GDi 엔진과 고효율 연구 자석형 모터 시스템으로 최고 합산 출력 141ps, 최대 합산 토크 27kgf·m의 성능을 발휘한다.

고출력 모터 시스템을 적용해 하이브리드 대비 우수한 가속 성능을 갖췄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75% 이상 낮다.



체감형 콘텐츠 및 실감미디어 기술 등 미래 산업과 연계한 전남글로벌게임센터가 27일 개소식을 가졌다.

체감형 커넥티드 게임산업 육성

전남글로벌게임센터 개소...전남진흥원 운영

체감형 콘텐츠 및 실감미디어 기술 등 미래 산업과 연계한 ‘전남글로벌게임센터’가 문을 열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창렬)은 27일 나주 혁신도시에 을 위한 전남글로벌게임센터가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필벽 이장현 대표, 모바일게임협회 황성희 회장, 자세대용합콘텐트산업협회 최요철 회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영재 본부장, 나주시 의회 김광근 의장, 전남도 문화산업디자인과 유영관 과장,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오창렬 원장,

한국광기술원 김영선 원장, 광주전남 ICT협회 김영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진흥원은 운영하는 전남글로벌게임센터는 기업 입주와 창업보육 공간 12실을 비롯해 게임 콘텐츠의 성능과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전문장비가 갖춰진 테스트베

드실과 체험존 등을 갖추고 있다.

전남진흥원은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기반 게임산업육성사업’에 지정된 이후 총사업비 30억원(국·도비 각 15억원)을 투입, 기업유치 및 사업화 지원, 해외기술교류회 개최와 국내·외 마켓잡 등 체감형 게임 산업 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오창렬 전남진흥원장은 “전남글로벌게임센터를 통해 이전기업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수소·전기차 충전용 ‘미니 휴게소’ 신설

2025년까지 전국에 200개 구축

가스차와 수소차, 전기차를 위한 충전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소형 복합휴게소 200개소가 2025년까지 전국 도로변에 구축된다.

수소·전기차의 보급이 활성화될 때까지 이들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50%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복합휴게소는 고속도로의 경우 기존 휴게소에 충전시설을 추가하고, 나머지 고속도로나 국도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건립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속해지는 복합휴게소는 크기가 기존 휴게소의 5분의 1, 10분의 1 수준인 소형 휴게소”라고 설명했다.

민간업자는 30년간 휴게소에 딸린 편의시설을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한다.

복합휴게소는 액화석유가스(LPG)에서 수소를 분리하고, 수소를 산소와 화학반응시켜 전기도 생산하게 된다. 이 때문에 가스차와 수소·전기차에 동시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

국토부는 도로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해 내년부터 사업자 선정 및 구축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속도로에는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충전소도 2020년까지 6곳 이상 설치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수소·전기차의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9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줄 방침이다.

다만 통행료 감면은 수소·전기차의 보급이 활성화되는 시점까지 한시 적용키로 했다.

/연합수스

12년 연속
퍼스트 브랜드 대상
EVENT
2월 13일 ~ 3월 5일

이벤트1	이벤트2	이벤트3	이벤트4
<p>참 편한 비데 Comfort NEW</p> <p>BD-N43(설치비 별도) / BD-N43(설치비 별도)</p> <p>279,000 / 249,000</p> <p>+브레프트 파워 액티브 5종</p>	<p>합리적인 가격 실속형 비데 특가</p> <p>BD-KA23(설치비 별도)</p> <p>159,000원</p>	<p>NEW 비데 보상판매 3년간 무상 AS 지원!</p> <p>BD-RN630(R) (설치비 포함)</p> <p>269,000원</p> <p>*타사 제품 가능</p>	<p>새 비데를 할인가! 비데 보상 판매</p> <p>BD-KA43(R)(S)(설치비 포함)</p> <p>219,000원</p> <p>*타사 제품 가능</p>

구입문의 | (주)비데프라자 062) 515-1144 설치비 2만원추가!